**부활 제6주일(2018년 5월 6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 쯤이야. 뭐.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천지가 개벽하는 것도 아닌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조동화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변화와 공동체의 쇄신, 사회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꾼 것은 따지고 보면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남 핑계를 많이 댑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그런데 사실, 문제는 내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욕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필립보, 유다... 모두 그 시대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품었던 자그마한 믿음과 희망이 결국 온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 성인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들이었고, 평범한 소년, 소녀, 청년들이었습니다. 아주 보잘 것 없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사랑과 믿음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작은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죠. 무대는 다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순간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스승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유언.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사랑’ 이라는 의미로 그리스어 성경 원문에 쓰인 단어는 능동적인 행동과 실천을 내포하는 동사가 쓰입니다. 단지 그저 감정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의미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인 것이죠.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명예가 높다 해도, 마음 속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성당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 사랑할 줄 모르면서, 용서할 줄 모르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진정,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지... 인생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받지 못하고 사랑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따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 받고, 아파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상처 없는 척, 안 그런척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늘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아무 원한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 한을 그대로 안고 죽어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 인간을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고쳐주고 구원해 주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닮아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참된 기쁨이, 참된 평화가, 그리고 참된 행복이 우리 삶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